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 경험, 사회적 지지, 다문화 지원정책이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종단적 연구: 잠재성장모형과 다층모형분석

방성아
조선대학교 행정복지학부

A longitudinal Study on The Impact of Multicultural Youth's Bicultural Experience, Social Support, and Multicultural Support Policies on Achievement Motivation: Latent Growth Model and Hierarchy Linear Model Analysis

Sung-A Bang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Welfare at Chosu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이중문화경험과 사회적지지가 발달궤적에 따라 다문화 청소년들의 성취동기에 어떠한 변화양상을 보이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한국사회에 이종고를 겪으며 살아가고 있는 다문화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적·실천적·학문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방법은 첫째, SPSS 22.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여 기초적인 정보를 확보하였다. 둘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하는 MAPS의 7~9차년도 데이터를 대상으로 결측치를 확인하고 처리방법으로 최대우도법(Full Information Maximization Likelihood)을 사용한 후, AMOS23을 활용한 잠재성장모형(LGM:Latent Growth Model, 이하 LGM)을 활용하였다. 셋째, 다문화지원정책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위계적선형모형(HLM: Hierarchical Linear Model, 이하 HLM)분석을 실시하고 다문화 청소년의 성취동기에 어떠한 상호작용효과를 주는지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성취동기와 이중문화수용태도의 초기치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beta=.176, P<.001$), 성취동기 변화율은 유의한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054, P<.001$). 둘째, 사회적지지는 성취동기의 초기치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beta=.348, P<.001$), 성취동기 변화율에는 유의한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978, P<.001$). 셋째, 교우관계는 다문화 지원정책에 따라 성취동기에 유의미한 상호작용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2.184, P<.01$).

Abstract This study was undertaken to determine how dual cultural experience and social support change the motivations of multicultural youths and to suggest a policy and practical and academic measures to improve achievement motivation in this population. Frequency analysis and statistical analysis were performed using SPSS 22.0, and Latent Growth Model (LGM) analysis was performed after using the Full Information Maximization Likelihood method to cope with missing data. Finally, Hierarchical Linear Model (HLM) analysis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effects of interactions on achievement motivation. The study has three primary findings. First, initial values of achievement motivation and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had a significant positive impact on achievement motivation ($\beta=.176, P<.001$), but the rate of change in achievement motivation had a significant negative impact ($\beta=-.054, P<.001$). Second, social support had a significant positive impact on the initial level of achievement motivation ($\beta=.348, P<.001$) but a significant negative impact on the rate of change of achievement motivation ($\beta=-.978, P<.001$). Third, the interaction betwee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multicultural support policies significantly affected achievement motivation ($t=2.184, P<.01$).

Keywords : Multicultural Youth, Achievement Motivation, Bicultural Experience, LGM, HLM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신진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1S1A5A8065038)

*Corresponding Author : Sung-A Bang(Chosun Univ.)

email: bsaep@hanmail.net

Received October 31, 2023

Revised December 13, 2023

Accepted January 5, 2024

Published January 31, 2024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이중문화경험과 사회적지지가 발달 궤적에 따라 다문화 청소년들의 성취동기에 어떠한 변화 양상을 보이고 있는지를 추정하고 그 발달궤적에 영향을 주는 예측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예측된 개인수준의 변인과 지역수준의 다문화 지원정책이 성취동기에 어떠한 상호작용을 미치는지 파악하여, 한국사회에 이중고를 겪으며 살아가고 있는 다문화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적·실천적·학문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 목표는 아래와 같다.

첫째, 다문화청소년들의 이중문화 경험(국가정체성, 이중문화 수용태도, 다문화수용성), 사회적지지(교우관계, 교사관계), 성취동기의 발달궤적을 파악한다.

둘째,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 경험(국가정체성, 이중문화 수용태도, 다문화수용성), 사회적지지(교우관계, 교사관계)가 성취동기의 발달궤적에 따라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한다.

셋째, 개인수준(이중문화 경험, 사회적지지)과 지역수준(다문화 지원정책)이 다문화청소년 성취동기에 어떠한 상호작용을 미치는지 파악한다.

1.2 연구의 필요성

통계청 다문화 총인구조사(2022)에 따르면, 다문화 가족의 경우, 2018년 약 100만 명에서 2019년에는 약 106만 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다문화 가정 청소년(10-19세)은 2018년 약 9만3천명에서 2019년에 약 10만 8천명, 2021년 12만 명이 넘어서고 있다[1]. 여기에 중도입국·외국인학생의 증가 또한 21년 전년 대비 약 13%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16만 명(2021년 기준)을 초과하고 있다[2]. 또한 3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결과[3], 다문화 자녀들이 학업중단 사유로 '그냥 다니기 싫어서(46.1%)', 친구나 선생님과의 관계(23.4%)순으로 높았으며, 2015년에 1.3%였던 '친구와 선생님과의 관계'가 2018년에 23.4%로 22.1%p 증가 하여 새롭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목이다. 또한 초등학교 고학년(9~11세)은 학교를 그만 둔 주된 이유로, 학교생활·문화가 달라서(40.8%)를 차지하고 있다. 학교생활에 부적응 이유에서도 '친구들과 못 어울려서(53.5%)'가 매우 높게 나타나, 다문화청소년들의 친구·교사관계 및 문화차이 등 그들을 둘러싼

생태학적 관점의 연구들이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사안이다. 따라서 다문화 실태조사를 근거로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중문화경험과 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학교생활 안에서 관망이 다문화청소년들에게 장애물을 극복하고 성장·발전할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다문화청소년들이 지니고 있는 개인수준(이중문화 경험, 사회적지지)과 지역수준의 다문화지원정책이 성취동기에 어떠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1.3 이론적 배경

문화차이와 관련한 이중문화 경험요소로 국가정체성, 이중문화수용태도, 다문화수용성 등이 있다[4,5]. 첫째, 국가정체성은 문화적 조화, 문화적 혼합과 관련된 개념으로, 문화적응을 위한 방법 중 하나로 보고되고 있다[6,7]. 이중문화 정체성은 일반적으로 소수집단에 초점을 두는 개념으로 특정 집단에 대한 태도, 신념에 대한 연대감을 의미한다[8]. 즉, 두 문화가 지니고 있는 가치, 신념, 관습 등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서로 다른 두 문화 안에서 서로 융화하려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믿는 개인의 가치와 신념[8,9]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이중문화수용태도는 한국문화와 이와 다른 이질적인 배경을 지닌 부모님문화를 수용하고 통합하는 태도를 의미한다[10-12]. LaFromboise 등(1993)[5]은 이중문화역량의 핵심적 구성 요소의 하나로 주류 및 원 문화집단에 대한 긍정적 태도(Positive attitude toward both groups)를 제시하였는데, 어느 한 문화를 더 높은 태도로 보지 않고 각각에 대해 수평적인 태도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는 두 문화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가 전략 유형의 중요한 축을 이룬다는 점에서 Berry & Sam(1997)[13]이 제시한 통합전략과 유사하다. '통합'태도는 주류문화와 비주류문화의 적절한 수용과 통합을 의미하며 두 문화에 통합적으로 적응하게 되면 심리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6,10,14]. 셋째, 다문화수용성은 앞으로 미래사회는 초연결사회로서 새로운 지식과 문화가 빠르게 흡수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얼마나 이 사회와 문화를 빠르게 수용할지, 또한 나와 다른 차이를 가진 상대를 얼마나 잘 공감하고 유연하게 받아들일지는 다가올 미래사회에 핵심역량중 하나이다[15]. 현재 인구감소로 인해 학생 수가 감소하는 반면에 다문화 학생들은 매년 1만명씩 증가하여 2021년에는 16만명을 초과하고 있다[2].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안에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는

것을 통해 서로가 하나 됨을 중요하게 여겨야 할 때이다 [16]. 즉, 나와 다른 인종 및 문화와 배경을 가진 사람이 나 집단을 하나의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정도를 다문화 수용성이라 정의할 수 있다[17]. 이중문화경험과 성취동기와의 관계에서 다문화청소년들은 이중문화로 인해 우울, 위축 등 심리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18]. 반면 긍정적인 이중문화 수용태도를 갖은 청소년들은 효과적인 역할 수행으로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빠르게 적응하는 능력을 지닌다고 하였다[19-23]. 이중문화 경험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문화가정 자녀의 또래관계, 자아탄력성, 자아효능감, 우울증, 학교적응, 사회적위축, 이중문화 정체성, 다문화수용성 등이, 진로 탐색 및 진로결정, 삶의 질 등에 유의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24-27]. 또한 다문화가정 자녀의 심리적, 신체적, 관계적, 사회적 발달등과 국가정체성, 이중문화 수용태도, 수용성과의 영향관계에서도 상호관계를 가진다고 하였다[28-32]. 하지만 주로 횡단연구로 진행되었으며,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경험에 관한 종단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상태이다.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적지지는 이제 청소년들은 가정에서 벗어나 제2의 가정이라 할 수 있는 학교라는 장소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다문화청소년들 또한 생활영역이 확대되어 학교 안에서의 친구와 교사 등 교내 도움을 주는 사람들로 다양한 사회적 관계망을 갖게 된다[33]. 특히 친구관계는 또래와의 상호존재 관계를 맺는 것으로 사회적 심리·정서적 안정을 충족하고 사회적 기술과 소통능력을 습득하는데 도움을 준다[34]. 다문화 청소년들은 문화적 차별로 인해 친구와의 갈등을 초래하기도 하지만[35], 긍정적 친구관계는 다문화 청소년의 심리적 안정감을 줌으로써 그들이 겪는 어려움을 잘 대처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보호역할을 제공받기도 한다. 학교 내에서 친구 다음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는 교사관계는 지적성장 및 심리사회적 측면의 발달에 있어 지대한 영향력을 끼친다[36-38]. 교사는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 및 학교적응을 하는 과정에서 언어격차, 따돌림, 학습부진 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학교적응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39]. 이러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사회적지지에 대한 요인으로 교우관계와 교사관계에 집중하였다. 사회적지지와 성취동기간의 관계는 충분한 지지를 받은 다문화청소년들은 학업성취, 자아존중감, 자아개념들이 긍정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으며 결국엔 성취동기를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다. 또한 부모의 지지나 친구의 지지, 교사의 지지

등으로 격려와 칭찬을 많이 받을수록 성취동기가 높아진다고 하였다[40,41]. 따라서 다문화청소년들의 주변 사람들과의 긍정적 상호작용은 다문화청소년들의 과업을 수행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한다.

성취동기는 중요한 과업을 수행하려는 자신의 욕구와 그 과업 수행으로 인해 높은 수준에 이르고자 하는 욕구로 정의할 수 있다[42]. 즉, 높은 수준의 일을 수행하면서 스스로 개인의 노력으로 장애물을 극복하고 그러면서 더 발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발달단계상 급변화하는 시기인 청소년기에 특히 필요한 핵심요소이다[43]. 성취동기가 높은 사람은 도전적이며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과 책임감이 높다. 반면 성취동기가 낮은 개인은 즉각적인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일을 선택하고 성공에 대한 태도보다 실패에 대한 불안과 회피에 대한 태도가 더 높다고 하였다[44]. 청소년기의 성취동기는 스스로 과업에 흥미를 갖고 몰두하기 때문에 도중에 장애물이 생기더라도 인내심과 도전의식을 가지고 장애물을 극복하게 되는 원동력이 된다[45]. 즉, 청소년기의 높은 성취동기는 발달과업을 이루고 성장하는데 필요한 다각적으로 도전할 수 있게 한다. 실제로 학업성취, 과제해결능력, 학교적응 등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긍정적 변인으로 나타난다[46,47]. 높은 성취동기의 다문화청소년일수록 문화적응으로 인한 어려움 등의 장애물을 잘 감내할 수 있으며, 주어진 과업에 대해 성실하게 수행함으로써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발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다문화청소년의 성취동기에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함으로써 다문화 청소년들의 성취동기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그들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해 의미가 깊다. 성취동기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문화수용태도와 성취동기, 사회적 위축, 자아존중감 등이 학교생활적응, 진로결정 등에 긍정적 효과를 보였으며[43,48-51], 종단연구로는 부모의 교육수준, 가족지지, 교사지지, 자아존중감, 진로결정성 등이 높을수록 성취동기도 증가하였다는 연구결과[52-54]와 반면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친구지지가 성취동기에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55]연구결과도 있다.

다문화청소년의 성취동기와 관련하여 중요성이 강조되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는 지역수준과 관련한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이다. 다문화지원정책은 여러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그 중 교육부와 여성가족부에서 중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에서는 2006년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대책'으로 시작되어 2017년 '다문화교육지원계획'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다문화학생에 대한 맞춤형교육

과 다문화이해교육의 강화로 확대되었고[2], 여성가족부에서는 다(多)재다능 사업과 다문화가족 자녀지원사업으로 다문화청소년의 심리 정서적 적응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활동하고 있다. 이렇듯 중앙정부에서 2006년부터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을 수립하여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11개 부처가 지원하는 다부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3]. 여성가족부(2022)[3]의 제4차 다문화 가족정책을 살펴보면, '다문화가족과 함께 성장하는 조화로운 사회'라는 비전을 세우고 '다문화청소년의 동등한 출발선 보장',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생활환경 조성'을 목표로 이를 실현해 내기 위해 '자녀 성장단계별 학업·진로지원', '정착주기별 맞춤형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기반 강화', '인권보호 및 차별해소', 등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하지만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이 중앙정부의 주도로 광역단위에서 시군으로 서비스 전달체계가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사업의 내용과 추진체계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실제로는 기획한 의도대로 추진하기에 어려운 시스템으로 분석하고 있다[3,5,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가족지원정책의 추진체계가 지역수준에 따라 다문화청소년 성취동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지원정책을 고찰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다문화지원정책과 관련한 선행 연구로는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이 학교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그로인한 다문화가족 정책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주로 다문화 청소년의 공식적·비공식적 사회적 지지를 강화할 것과 인식 개선, 지지적 환경조성을 위한 다문화교육을 활성화해야 함을 강조하였다[57]. 조승연(2021)[58]은 다문화가족 청소년 지원정책 참여가 다문화청소년들에게 사회적응도에 기여하고 있음을 검증하면서 그들의 사회적응도 향상극대화를 위해 정책 프로그램 전달체계 개선과 중소도시나 농어촌지역 지원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이응택과 장여옥(2023)[59]은 다문화가족정책 지원 경험이 문화적응스트레스를 매개하여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었다.

결론적으로 국내에 다문화 가정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자녀들도 증가하면서 다문화 청소년들이 경험하게 되는 사회적 편견, 차별, 사회적지지 체계부족, 학습결손, 문화적 차이 등의 문제가 청소년 자신 뿐 아니라 사회전체의 문제로 확대되어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면서도 다문화청소년들에 대한 연구들은 다각적인 측면에서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특히 다수의 연구들은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부족한 측면만을 강

조하여 부정적 고정관념을 형성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그 결과 다문화청소년은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소외계층'이라는 무의식적 이미지를 만들어 냈다. 이러한 무의식적 낙인은 다문화청소년들의 개인차원에서는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로, 사회적 차원에서는 특정 집단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사회통합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현재 한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청소년들의 개인적, 사회적 차원의 관점에서 긍정적 성취동기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한 원인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 성취동기가 시간의 변화 흐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개인수준(이중문화 경험, 사회적지지)과 지역수준(다문화 지원정책)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성취동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찾아내어 급변하는 다문화인구 증가에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실천적·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이제 한국사회는 단일민족에서 국제사회로의 진입로에 들어섰으며 앞으로 우리 미래를 이끌어 나갈 다문화청소년들을 위해 그들이 긍정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관한 다각적이고 객관적인 측면에 대해 생각해 볼 때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방법

첫째, 다문화청소년패널(MAPS: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이하 MAPS)의 7차년도(2017년)부터 9차년도(2019년)까지의 데이터베이스 자료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성취동기와 예측변인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어떤 양상을 띠고 있는지 파악하였다[60]. 둘째, 지역규모에 따라 다문화가족 정책 지원내용과 여부를 살펴보고 다문화정책이 다문화청소년 성취동기에 어떠한 상호작용을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셋째, 다문화청소년의 성취동기의 발달궤적과 예측변인을 분석하기 위해 잠재성장모형(LGM: Latent Growth Model, 이하 LGM)을 활용하였다. 넷째, 잠재성장모형에서 도출된 예측변인인 개인수준과 다문화지원정책의 지역수준이 다문화청소년의 성취동기에 어떠한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층모형(HLM: Hierarchical Linear Model, 이하 HLM)을 사용하였다.

2.2 분석방법

첫째, SPSS 22.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여 기초적인 정보를 확보하였다. 둘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하는 MAPS의 7~9차년도 데이터를 대상으로 결측률을 확인하고 처리방법으로 최대우도법(Full Information Maximization Likelihood)을 사용한 후, AMOS23을 활용한 잠재성장모형(LGM)을 활용하였다. 셋째, 다문화지원정책의 여부를 파악하고 다문화지원정책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위계적선형모형(HLM)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다문화청소년패널연구(MAPS)는 다양한 지역과 개인자료로 구성된 다층적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HLM 7.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개인변수와 지역변수를 구별하여 다문화 청소년의 성취동기에 어떠한 상호작용효과를 주는지 파악하였다.

2.3 연구대상

본 연구의 분석대상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다문화청소년 패널(MAPS)의 7차년도(2017년) 고1학년~9차년도(2019년)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수집된 자료 중에서 7차 조사부터 9차 조사까지 3시점으로 충실히 응답한 다문화청소년들 중 3차 시점 자료를 기준으로 총 1,146명을 최종선정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혼동을 줄이기 위해 1차 시점(7차년도, 고1), 2차 시점(8차년도, 고2), 3차 시점(9차년도, 고3)으로 재명명 하였다.

3. 연구결과

3.1 선형모형 추정치

최종 연구모형을 분석하기 위해 주요변인들의 초기 값과 변화율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변수에 대해 변화율이 정적으로 유의하기 때문에 성취동기수준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035만큼 증가하고 이중문화수용태도는 .031, 다문화수용성은 .039만큼 유의미하게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공분산이 부적관계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초기 값이 낮으면 변화율이 높고 초기 값이 높으면 변화율이 낮은 것을 의미한다.

Table 1. Linear model estimates of key variables

var.	div.	mean	varia.	cov.
Achievement motivation	ini.val. (S.E)	3.015*** (.012)	.033*** (.014)	-.019*** (.008)
	ratecha. (S.E)	0.035*** (.009)	.007*** (.008)	
national identity	ini.val. (S.E)	2.854*** (.017)	.024 (.027)	-.014 (.017)
	ratecha. (S.E)	.036 (.014)	.007 (.015)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ini.val. (S.E)	2.898*** (.011)	.003*** (.011)	-.003*** (.007)
	ratecha. (S.E)	.031* (.009)	.004*** (.006)	
receptivity	ini.val. (S.E)	3.183*** (.014)	.033*** (.020)	-.024*** (.012)
	ratecha. (S.E)	.039*** (.011)	.017*** (.011)	
friendship	ini.val. (S.E)	4.010*** (.019)	.016 (.035)	.014 (.022)
	ratecha. (S.E)	.026 (.015)	.003 (.019)	
teacher relationship	ini.val. (S.E)	3.843*** (.021)	.059 (.039)	-.029 (.024)
	ratecha. (S.E)	.034 (.016)	.025 (.021)	

*p < .05, **p < .01, ***p < .001

3.2 연구모형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경험(이중문화수용태도, 다문화수용성, 국가정체성)과 사회적지지(교우관계, 교사관계), 통제변인(경제수준, 결혼상태)간의 구조모형(Fig. 1)과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최종모형을 Fig. 2와 같이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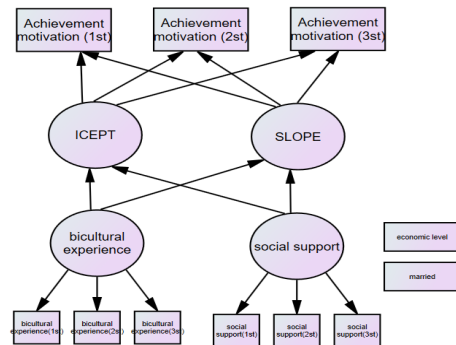


Fig. 1. Structural model for the trajectory of change in achievement motivation of multicultural youth and the influence of bicultural experience and social sup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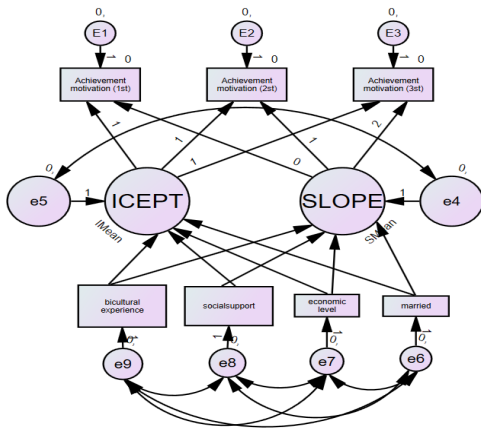


Fig. 2. Final model for the change trajectory of achievement motivation of multicultural youth and the influence between bicultural experience and social support

본 연구의 연구모형의 적합도의 결과는, χ^2 값은 61.865, TLI값은 .882, CFI값은 .922, RMSEA값은 .059로 나타나 수용가능한 적합도로 확인되었으며 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Research model suitability

Research model	χ^2/df	TLI	CFI	RMSEA
	61.865/7	.882	.922	.069

모형에 대한 경로계수 결과는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취동기와 이중문화수용태도의 종단적 관계에서 이중문화수용태도는 성취동기의 초기치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beta=.176, P<.001$), 성취동기 변화율은 유의한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054, P<.001$). 이는 이중문화수용태도가 감소될수록 기울기가 상승하고, 이중문화수용태도가 증가할수록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지지는 성취동기의 초기치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beta=.348, P<.001$), 성취동기 변화율에는 유의한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978, P<.001$). 이는 사회적지지가 감소될수록 기울기가 상승하고, 사회적지지가 증가할수록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제변인인 경제적 수준과 부모결혼상태는 성취동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Table 3. Path Coefficient of conditional model

Route	no-stand. path coef.(S.E)	stand. path coef.(β)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Achievement motivation. initial value	.199***(.030)	.176***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Achievement motivation. rate of change.	-.113***(.025)	-.054***
social support -> Achievement motivation. initial value	.207***(.018)	.348***
social support -> Achievement motivation. rate of change.	-.115***(.015)	-.978***
economic level> Achievement motivation. initial value	-.009(.013)	-.043
economic level> Achievement motivation. rate of change.	-.010(.011)	-.032
Married or not> Achievement motivation. rate of change.	-.069(.040)	-.097
Married or not -> Achievement motivation. rate of change.	.033(.033)	.078

*p< .05, **< .01, ***p< .001

3.3 다층모형의 상호작용효과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먼저 개인수준과 지역수준간의 상호작용분석에 앞서 무조건적 기울기모형검증을 실시한 결과, 교우관계($t=2.328, p<.05$)와 독립변인인 경제수준($t=2.264, p<.05$)이 성취동기에 지역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두 수준간의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보았다. 상호작용효과 결과, 교우관계는 다문화지원정책에 따라 성취동기에 유의미한 상호작용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제수준은 지역수준과 유의미한 상호작용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Table 4. Slopes and interactions results

slop model			
random effects	S.D	V.B	χ^2
intercept(γ_{00})	2.220	1.248	6.466**
friendship(β_{1j})	0.146	0.012	5.186*
economic level(β_{2j})	0.165	0.451	4.694*

interactions				
	fixed effects	coefficient	S.E	t
friendship	intercept(γ_{00})	3.074	0.152	20.128***
	Multicultural support policy(γ_{11})	1.024	0.083	2.184**
random effects		S.D	V.B	χ^2
intercept(γ_{00})		0.220	0.04	6.466**
friendship(β_{1i})		0.546	0.05	

* $p < .05$, ** $p < .01$, *** $p < .001$

4. 결론

연구문제 1에 대한 결과,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 경험(국가정체성, 이중문화 수용태도, 다문화수용성), 사회적지지(교우관계, 교사관계), 성취동기의 변화궤적을 살펴본 결과, 성취동기, 이중문화수용태도, 다문화수용성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가함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국가정체성, 교우관계, 교사관계는 초기값에 유의한 정적효과가 있었지만 변화율에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처음부터 국가정체성과 교우관계, 교사관계와 다문화청소년의 성취동기가 높게 형성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연구문제 2에 대한 결과,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 경험과 사회적 지지가 성취동기의 발달궤적에 따라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한 결과, 이중문화수용태도가 감소될수록 기울기가 상승하고, 이중문화수용태도가 증가할수록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지지는 성취동기의 초기치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성취동기 변화율에는 유의한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지지가 감소될수록 기울기가 상승하고, 사회적지지가 증가할수록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문제 3에 대한 결과, 개인수준(이중문화경험)과 지역수준(다문화 지원정책)이 다문화청소년 성취동기에 어떠한 상호작용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해 다층모형분석을 실시한 결과, 교우관계는 다문화지원정책에 따라 성취동기에 유의미한 상호작용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제수준은 지역수준과 성취동기에 유의미한 상호작용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함의 점은 첫째, 다층모형분석을 통해 다문화청소년의 성취동기를 위해 주

관적 특성과 사회·정책적 특성인 사회적지지, 그리고 국가적 노력까지 다차원적인 영역에 대한 동시적 접근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둘째, 다문화청소년 연령이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다문화지원정책은 초등학교 중심의 지원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청소년들의 발달단계에 맞는 다양한 정책사업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현재 실제 다문화청소년에게 필요한 프로그램 보다는 고정관념에 근거한 프로그램이 다수라는 점에서 오히려 차별을 증용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 식 프로그램을 재생산하는 것이 아닌 통합적 관점의 프로그램을 생산해 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그들을 둘러싼 학교, 지역사회, 학부모 등 생태학적 관점의 실효성 있는 다문화 이해교육 역량강화가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사회의 다문화 증가 추세에 발맞춰나가기 위해서는 지원정책이 언어교육과 초등학교 중심 교육, 역사별적인 다문화인식 개선사업에 집중되어 있는 시스템과 부족한 측면만 채워주려는 정책에서 벗어나 각 지자체에서는 국제사회로의 상황에 맞는 다문화지원정책의 개발 및 개정을 위한 사회적 시사점을 남길 것이다. 셋째,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자료를 구축하고 있는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데이터를 표본으로 하다보면 서로 다른 환경적 특성과 배경을 가지고 있어 일반적 회귀분석을 실시한다면 결과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변량구조와 오차변량을 파악할 수 있는 다층모형(HLM)방법이 적절함을 보여주었다. 또한 잠재성장모형은 개인수준과 조직수준을 구별해서 분석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생태학적요류를 줄이고 표준오차를 정확히 추정할 수 있는 다층모형(HLM)방법을 마지막단계에서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신뢰성과 타당성 있는 연구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후속연구의 근거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대상자들은 국제결혼가정자녀로만 한정되어 있다. 현재 한국의 다문화가정 자녀 중에는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2021년 기준으로 9천명, 외국인학생들은 28천명이 넘는다. 이들을 합한 전체 다문화 학생 수는 16만 명 이상으로 전체 학생 수(533만명)에 3%에 해당되는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공공데이터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 이에 향후에는 중도입국·외국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가 구축되어 이들의 성취동기, 이중문화경험태도, 사회적지지 등에 대한 분석들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References

- [1] Statistics Korea. National Statistics Portal,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resident registration population status. <https://kosis.kr/index/index.do> (accessed Mar. 18, 2022)
- [2] Ministry of Education. This is the 2022 multicultural education support plan. <https://www.moe.go.kr/main.do?s=moe> (accessed Mar. 18, 2022)
- [3]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Korean Multicultural Survey. http://www.mogef.go.kr/as/asl/as_asl_s001.do (accessed Mar. 18, 2022)
- [4] Berry, J. W.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 general framework. In W. H. Holtzman & T. H. Bornemann (Eds.), *Mental health of immigrants and refugees*. pp. 90-102. 1990.
- [5] T. LaFromboise, H. L. Coleman, J. Gerton, Psychological impact of biculturalism: evidence and theory. *Psychological bulletin*, 114(3), 395. 1993. DOI: <http://dx.doi.org/10.1037/0033-2909.114.3.395>
- [6] J. W. Berry, J. S. Phinney, D. L. Sam, P. Vedder, Immigrant youth: Acculturation, identity,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55(3), 303-332. 2006. DOI: <https://doi.org/10.1111/j.1464-0597.2006.00256.x>
- [7] M. K. Park, A Study on Multicultural families recognition of pre-early childhood teachers. *Learner-Centered Curriculum Education Society*. 18, pp.573-596. 2018.
- [8] M. K. Park, Y. J. Cha, H. J. Lee, The Effects of Using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on the Bicultural Identity of the Multicultural Youths: Focusing on Propensity Score Matching. *Multicultural Society Research*, 12(3), 107-140. 2019. DOI: <https://doi.org/10.14431/jms.2019.10.12.3.107>
- [9] S. R. Song, M. S. Park, Social Rejection and Withdrawal Behaviors Experienced by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ies : The Mediating Role of Dual Identity. *Future social welfare research*, 9(1), 65-96. 2018. DOI: <https://doi.org/10.22836/kaswpr.2018.9.1.65>
- [10] S. Y. Lee, A study of longitudinal changes and relevant factors of multicultural acceptability attitudes amongst multiethnic adolescents. *Korean Youth Studies*, 29(1), 179-208. 2018. DOI: <https://doi.org/10.14816/sky.2018.29.1.179>
- [11] J. S. Kim, W. W. Sh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cosystemic Factors and Ego-resilience of Adolesc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Welfare and cultural diversity research*, 4, 21-39. 2017. DOI: <https://doi.org/10.35873/ajmahs.2017.7.1.043>
- [12] B. W. Park, The effects of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in adolesc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on adaptation to school life: The mediating effects of achievement motivation. *Welfare and cultural diversity research*, 4, 21-39. 2022. DOI: <https://doi.org/10.51155/KAMW.2022.4.1.21>
- [13] J. W. Berry, D. L. Sam,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Handbook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2), 291-326. 1997.
- [14] A. Kocic, L. Mannetti, D. L. Sam, The role of majority attitudes towards out-group in the perception of the acculturation strategies of immigrant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9(3), 273-288. 2005. DOI: <http://dx.doi.org/10.1016/j.ijintrel.2005.06.004>
- [15] M. K. Yang, Seeking the direction of career education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amna Culture*, (59), 187-209.2018 DOI: <https://doi.org/10.35221/tamla.2018..59.007>
- [16] H. R. Ku, S. H. Seong, K. H. MO, The Effect of Multicultural Education Experiences on Adolescents' Multicultural Acceptance: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Their Significant Others. *Cultural exchange and multicultural education*, 10(4), 61-80. 2021.
- [17] I. J. Yoon, Y. H. Song, South Koreans' Perceptions of National Identity and Acceptance of Multiculturalism. *Unification issue research*, 23(1), 143-192. 2011.
- [18] S. K. Kim, G. M. Yang,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the ego resilience of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Focusing on bilingual factors, bicultural factors, and social support. *Journal of Adolescent Studies*, 19(11), 147-176. 2012.
- [19] I. J. Yoon, E. B. Kim, Language use and children's social identity in multicultural families. *Bilingualism*, 48(48), 273-307. 2012. DOI: <https://doi.org/10.17296/korbil.2012..48.273>
- [20] E. Y. Jin, The mediating effect of bicultural competen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cculturation stress and psychosocial adaptation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Focusing on gender differences. *Journal of Korean School Social Welfare*, 32, 303-326. 2015.
- [21] S. G. Carrera, M. Wei, Bicultural competence, acculturative family distancing, and future depression in Latino/a college students: a moderated mediation model.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61(3), 427-436. 2014. DOI: <http://dx.doi.org/10.1037/cou0000023>
- [22] A. M. D. Nguyen, V. Benet-Martinez, Biculturalism and adjustment: A meta-anapysi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44(1), 122-159. 2013. DOI: <http://dx.doi.org/10.1177/0022022111435097>
- [23] H. G. Son, E. H. Kim, Verification of the sequential mediating effects of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and self-estee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achievement motivation perceived by youth from multicultural families. *Journal of Adolescent Studies*, 28(4), 219-245. 2021. DOI: <https://doi.org/10.21509/KJYS.2021.04.28.4.219>
- [24] R. N. Choong, J. J. Hong, Adaptation of migrant

- workers' children to Korean society : About Adaptation of Mongolian migrant worker's children in Seoul, Gyeong gi Area. *Korean Child Welfare*, (22), 127-159. 2006.
- [25] M. Y. Lee, A Study on the multiculturalism for the development of social rights - Focus on the multiculturalism-related legislation for female marriage immigrants in Korea. *Local Autonomy Act Research*, 17, 398-425. 2017.
DOI: <https://doi.org/10.21333/lgli.2017.17.4.015>
- [26] C. M. Yoo, Identifying Patterns of Bicultural Adaptation in Adolesc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Multicultural society research*, 13(3), 73-107. 2020.
DOI: <https://doi.org/10.14431/jms.2020.10.13.3.73>
- [27] S. E. Lee, N. Y. Choi, The Mediating Role of Bicultural Experi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Life Satisfaction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Home and quality of life research*, 39(1), 17-29. 2021.
- [28] S. K. Kim, K. M. Yang, The Study on the factors which affect the ego-resiliency of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Youth Studies*, 19(11), 147-176. 2012.
- [29] Y. M. Yang, S. Y. Lee, The Effect of Parental Neglect on Multiethnic Adolescents' Multicultural Acceptability Attitude: Focusing on the Acculturative Stress and Social Withdrawal. *Multicultural education research*, 13(4), 129-149. 2020.
- [30] J. Y. Park, J. E. Chae, M. D. Zhao, The Effects of Cultural Adaptation Stress and Ego-Resilience on School Adaptation of Multicultural Families: Middle School Students in Multicultural Families. *multiculturalism and peace*, 14(2), 101-121. 2020.
DOI: <https://doi.org/10.22446/mnpisk.2020.14.2.005>
- [31] S. H. Yu, A Study on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Parent-related Factors, Achievement Motivation, and Learning Adaptation of High School Adolesc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Cultural exchange and multicultural education*, 9(5), 229-254. 2020.
- [32] H. G. Sohn, N. N. Shin, Longitudinal Stability and Reciprocal Effects among Adolescents' Perceived Acculturative Stress, Self-esteem and School Adjustment in Multicultural Families. *Youth Studies*. 27(12), 343-372. 2020.
DOI: <https://doi.org/10.21509/KJYS.2020.12.27.12.343>
- [33] C. Feiring, N. A. Fox, J. Jaskir, M. Lewis, The relation between social support, infant risk status and mother-infant interac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3(3), 400. 1987.
DOI: <https://doi.org/10.1037/0012-1649.23.3.400>
- [34] M. Y. Jang, Adolescent's Social Network Orientation: Social Support Processes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Korean Youth Counseling Research*, 12(1), 3-14. 2004.
- [35] H. S. Kim, Differential Risks of Juvenile Delinquency Among Adolescents of Multi-Cultural Families. *Korean Sociology*, 50(1), 41-74. 2016.
- [36] H. S. Jeon, J. S. Chun, The Influence of Acculturative Stress on Internalizing Problems: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Ego-resilience, Peer Relations, and Teacher Support among Adolescents in Multicultural Families. *Youth Studies*, 27(8), 223-255. 2020.
DOI: <https://doi.org/10.21509/KJYS.2020.08.27.8.223>
- [37] J. M. Jun, J. K. Chang, The Effects of Multicultural Awareness among Early Adolescents on Social Distance toward different ethnics and cultural in a way of moderating by Parents' and Teachers' Multicultural Attitudes. *Youth Studies*, 25(8), 81-101. 2018.
DOI: <https://doi.org/10.21509/KJYS.2018.08.25.8.81>
- [38] J. B. Kim, H. J. Tak,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er's Perception of Multicultural Education and School Adjustment for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y: Mediating Roles of Student-Teacher Relationship. *Youth Studies*, 18(10), 161-185. 2011.
- [39] D. J. Park, An Analysis on the Moderating Effect of Teacher Support on the Effects of Acculturation Stress on School Adjustment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Convergence Information Journal*, 9(9), 175-184. 2019.
DOI: <https://doi.org/10.22156/CS4SMB.2019.9.9.175>
- [40] H. Bashir, S. Majeed, Investig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achievement motivation and parental encouragement of adolescent girls in district anantnag.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Indian Psychology*, 3(2), 104-112. 2016.
- [41] D. G. Suvitha, Parental Encouragement And Achievement Motivation Among Adolesc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Scientific & Technology Research*, 8(8), 828-832. 2019.
- [42] J. Shibley Hyde, K. C. Kling, Women, motivation, and achievement.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5(4), pp.364-378. 2001.
DOI: <https://doi.org/10.1111/1471-6402.00035>
- [43] R. H. Lee, H. S. Chae, C. M. Oh, The Dual Mediating Effect of Depression and Social Withdrawal in the Association between Acculturation Stress and Achievement Motivation among Multicultural Adolescents. *School social welfare*, 49, 1-24. 2020.
DOI: <https://doi.org/10.20993/jSSW.49.1>
- [44] B. Weiner, P. B. Johnson, A. Mehrabian, Achievement motivation and the recall of incomplete and completed exam question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59(3), 181. 1968.
DOI: <http://dx.doi.org/10.1037/h0025789>
- [45] S. A. Lee, G. H. Bang, An Influence on Multicultural Acceptability according to Student's Multicultural Understanding and Attitude in Elementary Schools. *Learner-centered curriculum education research* vol.17, no.17, pp. 837-856. 2017.
- [46] M. S. Kim, A Study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Changes in Academic Adaptation and Determinants Using Latent Growth Modeling. *Cultural exchange and multicultural education*, 8(4), 251-271. 2019.

- [47] E. Y. Yun, A Study on the Longitudinal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chievement Motivation, and School Adjustment of the Adolesc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Using the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multiculturalism and peace*, 13(2), 1-22. 2019.
DOI: <https://doi.org/10.22446/mnpisk.2019.13.2.001>
- [48] S. H. Yu, A Study on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Parent-related Factors, Achievement Motivation, and Learning Adaptation of High School Adolesc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Cultural exchange and multicultural education*, 9(5), 229-254. 2020.
- [49] H. Y. Kim, Acceptance Attitude and Multicultural Acceptance on Achievement Motivation and Academic Adaptation in Multicultural Adolescents: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Welfare & Cultural Diversity Studies*, 2, 87-108. 2020.
- [50] C. H. Lee, The Dual Mediating Effect of Achievement Motivation and Social Withdrawal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Support and Career Decision in Multicultural Adolescents. *Social science research*, 32(2), 271-289. 2021.
DOI: <https://doi.org/10.16881/iss.2021.04.32.2.271>
- [51] M. S. Kim, S. K. Ha, The Effects of Career Barriers on The Career Attitude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Th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Withdrawal and Achievement Motivation. *Welfare counseling education research*, 11, 81-107. 2022.
- [52] R. Sim, A longitudinal study on multicultural adolescents achievement motivation and related predicting and outcome variables using latent growth modeling. *Multicultural Education Studies*, 13(3), 55-84. 2020.
- [53] J. S. Park, S. W. Park, A. R. Lee, The Longitudinal Interrelations among Multicultural Acceptability, Achievement Motivation, and Career Determination of the Multicultural Youth. *Journal of Future Youth Society*, 19(1), 95-115. 2022.
DOI: <https://doi.org/10.34244/JFOYS.2022.19.1.5>
- [54] H. G. Sohn, E. H. Kim, An Analysis of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Achievement Motivation among Multicultural Adolescents: Using Serial Mediators of Multicultural Acceptability Attitudes and Self-esteem. *Youth Studies*, 28(4), 219-245. 2021.
DOI: <https://doi.org/10.21509/KJYS.2021.04.28.4.219>
- [55] S. H. Yu, C. Choe, The Trajectory of Achievement Motivation in Middle-school Adolesc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in South Korea: An ecological perspective. *Youth welfare research*, 22(3), 101-128. 2020.
DOI: <https://doi.org/10.19034/KAYW.2020.22.3.04>
- [56] G. M. Yang, J. Y. Kim, 'Multicultural Youth Longitudinal Survey and Policy Plan Research V: Policy Recommendations'. Korea Youth Policy Institute *Research Report*, pp. 1-161. 2017.
- [57] J. K. Kim, H. J. Oh, The Relationship of Bicultural Attitude, Career Decision-Making and Perceived Career Barriers among Multicultural Adolescents: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Maternal Career-Related Behavior. *Korean Youth Welfare Association*, 23(1), pp. 1-26. 2021.
DOI: <https://doi.org/10.19034/KAYW.2021.23.1.01>
- [58] S. Y. Cho, The effects of participation in the multicultural adolescent assistance programs on multicultural adolescents' social adaptation. *Multicultural content research*, 36, 187-212. 2021.
DOI: <https://doi.org/10.15400/mccs.2021.04.36.187>
- [59] E. T. Lee, Y. O. Chang, The Mediating Effect of Cultural Adaptation Stres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Youth's Experience in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Programs and School Life Adaptation. *Journal of Future Youth Society*, vol.20, no.2, pp. 29-51. 2023.
DOI: <https://doi.org/10.34244/JFOYS.2023.20.2.2>
- [60] Korea Youth Policy Institute. Multicultural youth panel survey. <https://www.nypi.re.kr/archive/board?menuId=MENU00221> (accessed Mar. 18. 2022)

방 성 아(Sung-A Bang)

[정회원]



- 2011년 8월 :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석사)
- 2017년 8월 : 조선대학교 행정복지학부 (사회복지학박사)
- 2017년 9월 ~ 현재 : 조선대학교 행정복지학부 초빙객원교수
- 2020년 3월 ~ 현재 : 초당대학교 교양학부 시간강사

<관심분야>

청소년복지, 노인복지,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정책